

## <책임기 좋은날2>

: 신입활동가를 위한 비영리 섹터 책 나눔

|   |  |
|---|--|
| <b>일시</b>   | 2014년 11월 23일 일요일, 12월 2일 화요일, 12월 21일 일요일                                       |
| <b>장소</b>   | 홍대 및 합정의 카페  |
| <b>주제</b>   |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을 통해 신입활동가들이 한국의 시민 사회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신화'에 대한 맹신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이야기 |
| <b>내용</b>   |  |
| <p>1. 계몽의 변증법?</p> <p>계몽의 변증법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M.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T. W. 아도르노(Theodor W. Adorno)가 미국으로 망명하였던 기간 중에 긴밀한 공동작업에 기초하여 완성된 기념비적인 저서이다.</p> <p>'왜 인류는 실로 인간적인 상태로 가지 않고 일종의 새로운 야만상태로 돌아가는가'-본서의 '서문'에 게재되어 있는 이 질문은 20세기의 역사를 돌아볼 때 참으로 절실하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스탈린 독재하에서의 강제수용소,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에 이르는 무기의 비약적 '발전'. 그것들은 확실히 문명화의 역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문명화의 역사에 의해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p> <p>따라서 저자들은 '계몽'이라는 개념에 이러한 야만의 싹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증을 시도한 것이다.</p> <p>그 때 본서가 '계몽은 신화(神話)로 퇴화한다'라는 테제(thesis)와 함께 '신화는 이미 계몽이다'라는 테제로도 이끌어낸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근대의 초극(超克)'이라는 슬로건은 종종 민족적인 신화에 원향(原鄉)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신화가 이미 계몽이라면 그러한 도피처도 또한 끊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와 계몽의 양면적인 비판 속에서 자기성찰의 잠재력을 발견해 내는 것, 거기에 저자들은 새로운 '계몽'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였을 것이다.</p> <p>[네이버 지식백과] 계몽의 변증법 [Dialektik der Aufklärung]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p> |  |

## 2. 테오도르 아도르노?

철학, 사회학, 미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연구 활동을 한 독일의 사상가이다. 1931년 모교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강사(私講師)로 일하면서 나치에 의해 추방되어 34년에 망명한 후 38년부터 미국에서 파시즘 연구를 진행하여 『권위주의적 성격』(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1947)과 호르크하이머와의 공저 『계몽의 변증법』(Dialektik der Aufklärung, 1947)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1949년에 귀국한 후 모교 교수가 되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자로 활약하며, 비판 이론, '부정적 변증법'을 전개하고, 사회, 문화, 과학 연구의 인간 소외 및 물상화 등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도르노 [Adorno, Theodor Wiesengrund]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 3. 텍스트 및 주제 선정 이유

오늘날 한국사회는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극심한 양극화와 경쟁위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로 국민적 불안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 서문을 통해 과학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사회가 윤택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사회가 야만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음을 문제로 인식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도 만연한 이기주의와 경쟁의 심화로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자살 외에는 다른 삶의 대안을 찾지 못하는 야만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도르노가 느꼈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자기성찰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책을 텍스트로 선정하게 되었다.

#### 4. 우리가 나눈 이야기

##### 1) 신입활동가들이 느끼는 한국사회는?

신입활동가인 우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먼저 암울한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다. 한국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인가라는 물음에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먼저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이 컸다.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진학하지만, 졸업을 하면 학자금 대출로 빚더미에 앉고 취업은 잘 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만다. 드라마 <미생>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건 개인인 바로 내가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가 개인을 책임져 주지 않고, 사회에 대해 기댈 수 없는 현실. 그것이 바로 신입활동가이자 청년들인 우리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낀 한국사회의 첫 느낌이었다.

물론 대학을 자퇴한 한 활동가도 있었는데, 소신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지금은 발목을 잡는다고 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지 않아도 한국사회에서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이젠 대학 졸업증이 고등학교 졸업증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대졸이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대학에 진학해야만 하고, 졸업하더라도 취업이 잘 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은 개인의 스펙 부족으로 치환되는 세상. 그것이 청년들이 느끼는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회현상을 대변하듯, 한 활동가는 대학 내 자치활동이 쇠퇴와 대학 기업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나 대안학습을 위한 모임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토익 스터디나 공부모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사고하고 비판하기 위한 시간들은 사라지고,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과는 상관이 없는 획일화된 스펙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그 스펙을 위한 공부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말 잘 듣는 노동자를 선별하기에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창의성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키워낼 수는 없는 암울한 한국사회의 구조라고 말했다.



## 2) 활동의 이야기

이런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신입활동가인 우리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사회를 호령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늘날 발생하는 많은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 활동가로서 첫 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1년차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며 느꼈던 시민사회의 현실은 밝지만은 않았다. 한 활동가의 단체는 현재 재정악화로 존폐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비단 그 단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활동가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신입활동가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며 활동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뜻과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삶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 활동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만다. 오늘날 다양한 단체들이 안고 있는 재정문제들을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그리고 한 활동가는 시민단체는 기업의 문화와는 다른 민주적이고 신선한 의사소통 구조가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나 기업의 예산을 감시하고, 좋은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

쓰는 단체들이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권위적인 문화를 갖고 있을 때가 많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들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또 다른 활동가는 많은 업무에 치여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좋은 뜻과 가치가 생각나지 않고 정작 업무만 남는 현실을 토로했다. 그리고 어떤 선배도 그런 가치의 중요성과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전반적으로 신입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며 느꼈던 현실은 좋은 뜻과 가치를 가지고 시작한 것에 비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한국사회에 내재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처럼,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사회의 단체들 역시 여러 어려움 속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다.



### 3) 앞으로의 한국사회는? 우리의 활동은?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입활동가들이 활동중단을 앞두고 있었다. 한 활동가는 활동을 그만두고 몇 년 돈을 모아 이민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한국사회에 어떤 희망을 걸지도, 그 희망이 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이 사회를 떠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고 방법이라는 생각에 이민을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느 활동가는 단체의 재정상황 때문에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었고, 다른 두 활동가는 하던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마음먹었다.

시민사회와 단체 내부의 문제든 다른 개인사정이든 간에 시민사회에 첫 발을 디딘 활동가들이 이렇게 활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모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활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시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했던 의지들이 많이 꺾인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앞으로 모임을 지속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자기성찰을 비롯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모색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